

No.81

Japan Weekly Digest

2011. 4. 9. ~ 4. 15.

대지진 이후 일본 비즈니스 관련 Q&A

1.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 위험 상황

- 동북지역의 지진 피해상황
- 후쿠시마 원전 7등급 격상에 따른 위험 정도
- 동경지역의 방사능 위험 정도
- 여진 및 피해 복구상황

2. 산업 활동 및 생활 애로 사항

- 전력, 철도, 공항, 항만 등 물류 상황
- 호텔, 통신, 대중교통 등 현지 상황
- 수돗물, 생활용품 등 수급 상황

3. 비즈니스의 정상화 여부

- 일본기업 및 외국기업들의 비즈니스 상황
- 빅 사이트 전시장 등 운영 상황
- 일본기업의 대체생산 움직임



협회 한일경제협회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 자료제공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kje.or.kr>)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며,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02-3014-9888)

대지진 이후 일본 비즈니스 관련 Q&A

1.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 위기에 따른 피해 상황

Q1. 일본의 지진 피해상황은?

- 일본 동북지역 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1만 3,219명, 행방불명자는 1만 4,274명, 합계 2만 7,493명임

〈피해 상황〉

2011.4.13일 기준

피해 상황	
사망	1만 3,219명
행방불명자	1만 4,274명
피난자	15만 1,115명
화재발생	351건
건물피해	22만 1,137건
라이프 라인	
정전	15만 8,000건
단수	24만 9,000건
도시가스 중단	11만 5,000건
폐쇄중인 금융기관	150점포
폐쇄중인 우체국	118국

Q2.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7등급으로 격상되었는데 방사능 피해 상황은?

-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정한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에 따르면 7등급을 ‘방사성 물질의 중대한 외부 방출, 방사성 요오드 I-131 환산 수만 TBq(테라베크렐) 이상 외부 방출’로 규정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출량이 해당 기준을 초과, 7등급 판정을 받았음
- 체르노빌의 경우 520만 TBq 방출된 것에 비해, 후쿠시마는 37만~63만 TBq 방출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같은 7등급이기는 하나 현재로서는 체르노빌의 약 1/10 정도 규모의 사고로 알려지고 있음

- 또한, 체르노빌과 차이점은, 유출량이 폭발적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방출되고 있다는 점임. 다만, 사고가 현재 진행형이고, 유출량의 100배가 넘는 방사성 물질이 사고원전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음

Q3. 동경 지역의 방사능 위험은 어느 정도인가요?, 동경에서 내리는 비에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나요?

- 동경은 사고지역으로부터 220km가 떨어져 있어,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4월12일 현재 동경지역 방사선량은 78nSv/h로, 2010년 서울지역 방사선량 평균치 107nSv/h와 비교해도 정상범위
(지역과 자연현상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50~300nSv/h는 정상범위)
- 따라서 ‘동경에서 내리는 비’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물질도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레벨로 평가

Q4. 제일 걱정되는 것이 여진입니다. 상황은 어떤가요?

- 지난 1주일 동안(6~12일) 매그니튜드 5.0이상 지진이 15회 발생하는 등 하루에 약 2번꼴로 강한 여진이 발생하고 있음
- 다만, 동경은 진원지에서 약 300km 떨어져 있어 진도 4로 관측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Q5. 대지진 피해복구상황은 어떤가요?

- 일본정부는 동북지역의 대지진 부흥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흥구상 회의」를 설치하는 등 피해 복구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정비에 착수함 (법안을 4월 국회에 제출 예정)
- 지진 피해로 생산 활동이 중단되었던 기업들이 생산설비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음. 완전 복구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구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제품의 수급체제는 크게 개선될 전망

- 일본정부 및 기업이 추진하는 복구사업에 우리기업이 참여할 경우 토목, 건설, 전력, 조선수리업, 부품소재 등에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2. 산업활동 및 생활 애로 사항

Q6. 전력부족, 항만, 공항, 철도, 도로 등 파손으로 일본기업의 생산 활동 및 물류에 차질 상황은?

- 동북지역의 철도, 도로, 공항, 고속도로와 직할 국도는 100% 가까이 복구되었고 폐쇄되었던 15개 항만도 모두 이용 가능한 상태임
 - * 신칸센 운행 재개 : 동경 ↔ 후쿠시마(4.12일)
 - * 센다이공항 운항 재개 : ANA, JAL 등 국내선(4.13일)
- 상하수도, 가스 등 인프라 복구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지진 피해가 크지 않은 도쿄, 오사카, 큐슈 등에서는 물류 차질로 인한 피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짐

Q7. 호텔, 통신, 대중교통 등 현지상황은 어떠한가요?

- 동경지역 호텔은 대부분 정상영업하고 있으며, 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객실예약이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통신망은 대지진 이후 안부를 묻는 전화 등의 폭증으로 일시적 마비현상을 보였을 뿐, 유무선 통신 모두 정상적인 상황임
- 동경 주변의 대중교통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신칸센과 철도도 이달 말까지 원전 규제구역을 제외한 전 구간이 정상화될 전망

Q8. 수돗물, 먹을거리는 방사선에서 안전한가요?

- 일본의 각 지방자치단체, 문부과학성 등에서 수돗물과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선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있음

- 수돗물의 경우, 3월 22일 동경 가나마치 정수장에서 210Bq(벵크렐)/kg의 I-131이 검출, 유아 기준치인 100Bq/kg(성인은 300Bq/kg)을 초과하였으나, 3월 28일 이후 검출되고 있지 않아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음
* 동경도는 20Bq/kg 미만일 경우 '미검출'로 발표
- 후쿠시마 앞바다 카나리에서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었고, 원전인근지역 시금치와 우유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선이 검출된 적이 있음
- 기준치를 초과한 우유의 경우, 일본인 평균 섭취량을 기준으로 1년간 마셔도 CT 촬영 한번 했을 때 쥘는 양과 같아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출하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어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 함유 식품이 소비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할 수 있음

Q9. 농수산물이 방사능 피해로 출하가 금지되었다고 하는데 식료품 수급은 원활한가요? 생수 등 생활용품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 대지진 직후 일본에서 생필품이 부족하다고 보도되었으나, 물류 정상화와 증산, 대체상품 수입 등을 통하여 대부분 해소되었음
- 현재 '생수, 우유, 낫토(일본식 발효콩), 요구르트, 즉석 조리밥, 담배' 등에서 약간의 부족현상이 보고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물건이 평소와 같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음

Q10. 계획정전으로 인한 생활에 불편은 없습니까?

- 전력부족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실시했던 계획정전은 난방용 전력수요가 줄어들면서 전력수급이 안정되어 4월 8일 이후 사실상 종료되었음
-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긴급조치로서 계획정전 계획 자체는 남겨두었으나, 현재로서는 정전으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전망

Q11. 여행자 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습니까?

- 여행자보험이 지진 등 천재지변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도록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한 때 여행자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잘못된 정보로 실제로 일본 대지진 이후 여행자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음

Q12. 긴급 시 재외공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은 동북지역 대지진 이후에도 동경 현지에서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동경지역에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및 대피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사관 영사부 콜센터(03-3455-2601~3)로 연락해 주시기 바람

3. 정상적 비즈니스 활동 가능여부**Q13. 일본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해외 기업과의 비즈니스 교류에 문제가 없을까요?**

- 지진 피해와 계획정전으로 생산을 중단했던 공장들이 시설복구와 생산을 재개하려는 등 정상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 지진 발생 이전, 10,500이었던 닛케이 평균지수가 지진발생 직후, 8,600대 까지 하락하였으나, 3월 22일 9,600까지 회복되었음
- 해외기업과의 비즈니스 교류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 일본에서 조달이 어려운 부품의 해외조달을 일본기업들이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기업과 일본의 무역거래는 확대되는 추세
- 무역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동북 대지진 이후 **3월 12~29일 대일 수출이 전년대비 51.5% 증가**
 - * 석유제품, 스테인리스 강철평판, 자동차부품, 생수 등 일본에서 부족한 물자나 제품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

Q14. 외국기업의 현지 기업 활동은 어떤가요?

- 동북지역 대지진 재해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영향으로 외국계기업이 일시적으로 사원을 귀국시키거나 오사카지역으로 본사 기능을 이전하였음
-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일본인들은 통상적으로 업무를 재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내 외국기업의 기업 활동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

<외국계기업의 복귀 사례>

- ① 요코하마에 소재한 IT시스템회사인 인도 다타컨설팅서비스재팬은 지진 발생 이후, 인도인 사원을 일시 귀국시켰으나 회사활동은 계속 유지
- ② 동경에 소재한 필립모리스재팬은 본사 기능을 일부 오사카로 이전하였으나, 3월 24일 동경으로 복귀
- ③ 동경에 소재한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SAP재팬은 지진 발생 이후, 외국인 직원을 철수시켰으나 현재는 전원이 복귀하여 정상 업무 수행

- 일본 진출 한국기업들도 삼성재팬이 센다이사무소를 정상화하였으며, 오사카로 이전했던 SKC, 한국으로 철수했던 금융기관들이 정상업무에 복귀함으로써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음

Q15. 비즈니스 교류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전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 마쿠하리 멧세, 도쿄 빅사이트, 퍼시픽 요코하마 등 수도권에 있는 대표적인 전시장에서는 이벤트행사가 정상 운영
-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마쿠하리멧세는 국제회의장 일부가 파손되어 시설이 함몰되는 등 문제가 있었으나, 4월 들어 이벤트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방문객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

Q16. 지진으로 인한 피해로 일본 내 다른 지역에서 대체생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기업들은 △해외에서 위탁 생산 △일본내 안전지역에서 대체생산 등 상황을 타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음

<일본기업의 대체생산 사례>

- ① 이바라기현에 소재한 스미토모금속공업의 가시마제철소는 지진 피해로 규슈에 있는 신일본제철 오이타제철소에서 대체생산
- ② 미야기현에 있는 일본제지의 이시노마키공장에서 생산중인 서적출판용 용지를 구마모토현 야쓰시로공장에서 대체생산
- ③ 이와테현에 소재한 도시바일렉트로닉스에서 생산하고 있던 반도체를 서일본 지역 3개 거점에서 대체생산

[참고 사이트]

(한국) 국가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 IERNet

<http://iernet.kins.re.kr>

(일본) NAVER 전국방사선량정보 (일본 문부과학성 자료)

<http://www.naver.jp/radiation>

문부과학성 대지진관련정보 (일본어)

http://www.mext.go.jp.cache.yimg.jp/a_menu/saigaijohou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보안원 (일본어)

<http://kinkyu.nisa.go.jp>

주일 한국대사관 (한국어)

<http://jpn-tokyo.mofat.go.kr/kor/as/jpn-tokyo/main/index.jsp>

동경 빅사이트전시장 (일본어, 한국어)

<http://www.bigsight.jp/english>

【금주의 일본 주요 보고서】

- (1)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중견기업』 오사카부, 4월12일
*<http://www.pref.osaka.jp/attach/1949/00071544/122.pdf>
- (2) 『지진 복구·부흥에 관한 자료와 논점 정리』 일본경제연구소, 4월12일
*http://www.jeri.or.jp/membership/pdf/center/center_1105.pdf
- (3) 『중소기업지원 가이드(대지진 관련)』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4월12일
*http://www.smrj.go.jp/kikou/dbps_data/_material/_g_0_kikou/johoteikyo/pdf/058939guidebook-ver02.pdf
- (4) 『경기Watcher가 본 동북대지진』 내각부, 4월12일
*<http://www5.cao.go.jp/keizai3/shihyo/2011/0413/985.html>
- (5) 『일본의 통계 2011』 총무성, 4월13일
*<http://www.stat.go.jp/data/nihon/pdf/nikkatu.pdf>
- (6) 『동북대지진 피해의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 간사이사회경제연구소, 4월13일
*http://www.kiser.or.jp/ja/temp/pdf/1237_Pdf01.pdf
- (7) 『동북지방 태평양지진에 대해』 경산성, 4월14일
*<http://www.meti.go.jp/press/2011/04/20110414003/20110414003.pdf>

【금주의 일정】

일 자	주 요 일 정
4월 11일(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 총리, 동북대지진 부흥구상회의 설치 발표 ○ 경산성, 후쿠시마피해지역 주민 1가구당 100만엔 보상 발표 ○ 가이에다 경산대신, 원자력담당대신 취임 ○ 2월 기계수주 발표(내각부)
4월 12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원자력전문가회의 개최(13일까지) ○ 2월 특정서비스 산업활동통계 발표(경산성)
4월 13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월례경제보고 발표(내각부) ○ 3월 기업물가지수 발표(일본은행) ○ 피해3현 75.8억 무이자 대출실시 발표(경산성)
4월 14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개최(美워싱턴) ○ '11년 동북대지진에 대해' 발표(경산성)
4월 15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F·세계은행 총회 개최(17일까지) ○ 도쿄전력 시미즈회장 기자회견